

대광고회 엄영수 목사, 임직감사에배 드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임직자들이 되어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동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고회(엄영수 목사)는 지난 11월 8일(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원로장로추대 1명, 안수집사 3명, 시무권사 5명이 은퇴를, 임직자 장로 3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5명, 추대권사 7명, 명예권사 3명 등에게 은퇴 및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 2부 원로장로 추대 및 명예권사 추대, 3부 집사, 권사 은퇴식, 4부 장로, 집사, 권사 취임식, 5부 축하와 권면 순으로 임직행사가 진행되었다.

담임 엄영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임직예배에 동부시찰 한영승 목사가 기도를, 대광고회 연합찬양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찬양이 있은 후 부노회장 김정호 목사는 사도행전 11:22~26절을 본문으로 "위대한 이인자"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도바울을 도운 바나바와 같은 임직자들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담임 엄영수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서약과 안수기도를 한 후 대광

광고회 장로, 집사,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고, 장학규 목사(전노회장)의 권면과, 노회장 이월식 장로의 축사가 있었다. 장학규 목사는 "옛날 마차여행을 하는 시기에 마차에 문제가 생기면 1등석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팔장만 끼고 마차에 그대로 있고 2등석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지만 마차에서는 내리고, 3등석인 사람들은 내려서 말에게 먹이도 주며

마부와 함께 일을 하며 마부를 돕는 사람들이라면서 1등석인 사람이 아닌 3등석인 사람으로 교회 중심이 되어 사명 잘 감당하라"며 권면했다. 이어서 임직과 및 기념품증정이 있은 후 임직



자 대표의 인사와 광고에 이어 엄만유 목사(용천노회 전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담임 엄영수 목사는 1979년 8월 5일 대광고회의 개척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설립 3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해오는 가운데 지난 11월 8일(주일) 오후 3시 새로운 일군을 세우는데 임직식이 거행되었으며, 이로써 엄영수 목사는 대광고회의 부흥성장위해 다시 한 번 도약하는데 새롭게 추진력을 가동시켰다.



모상련 목사, 웨신대 총동문회 회장 유임

웨신의 동문들과 학교가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자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총동문회가 지난 11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목

포주안교회(모상련 목사)에서 2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날 회장 모상련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최영호 목사가 기도를,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

교 총장 정인찬 박사는 예배소서 2:20~22절을 본문으로 "함께 연합하여 전진하는 동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웨신의 동문들과 학교가 진리안에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는데 서로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2부 순서로 회무처리에 들어간 총동문회는 임원선출에서 이흥규 동문의 제안을 받아드린 결과 현 회장 모상련 목사를 만장일치 선출하고, 임원들도 회장과 함께 유임되었다.

총동문회장 모상련 목사는 동문들의 뜻을 모아 회 발전과 웨스트minster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데 앞장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목회자들 위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만나는 이들마다 허끝을 차며 그 사람들 목사 맞이?

턱스립지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 마트나 백화점, 거리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또는 길을 가면서 하는 예기를 중 화두는, 뉴스와 신문들 통해 보고 들은 예기를 이다. '요즘 목사들 미쳤어' 한다. 사건이 발생은 한 두 주가 지났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마음에서 목회자와 성도여러분을 향해 호소하는 마음에서다.

대형 교회의 장 모(35) 목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마트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전국에 30여개 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체인 교회의 교육 목사로서 주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신체를 몰가로 찍다 체포된 장 씨는 강남에 있는 큰민음교회측 목사로 확인되었다. 큰민음교회 당회장 변승우 목사는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 등으로 규정된 사람이다. 그는 여성 몰가 사건을 일으킨 목회자가 자신의 교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기총 현 사무총장이 전 대표회장을 지낸 모 목사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을 안겼다. 폭행을 휘둘렀다는 A목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현장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A목사가 폭행을 휘두른 까닭은 자신이 한기총에서 제명된 것에 대한 울분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한다.

운 목사의 말을 빌리면 A목사는 다짜고 짜 욕두문자를 쓰면서 주먹으로 본인을 가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건현장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는 도중에도 A목사가 운 목사를 순서지로 가격하는 등 폭행행위가 그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주위에서 이 외에도 더 큰 문제는 A목사의 폭행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A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기 직전 언론사 H기자, P기자에게 폭행을 행사했고, 더 나아가 K목사에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P목사의 먹살을 잡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휘둘렀다

는 증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태야 어떻게 되었든 A목사는 한기총회에서 제명당한 아픔을 갖고 있다.

또한 한 때 큰 교단의 총무를 지낸 바 있는 황 모 목사가 박 모 목사를 찾아가 이미 준비한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상해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9시간의 사투 끝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사건 사고가 엄청나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면 한 때 존경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목사라는 칭호를 즉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주신 성직자란 성스러운 명칭인데, 해서는 안 될 불의한 행위로 인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목사란 직함이 여지없이 추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고도 강단에서 서서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어느 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모처에 모 권사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한국에 이름난 대면 알만한 부흥사를 몇몇 사람들이 단골로 이 식당을 찾는다고 한다. 이 식당을 찾는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는 권사가 몇 년을 두고 오래 숙성시킨 고급 곡주가 있는데 이들이 그 곡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래도 하고 놀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며칠 후면 인류 부흥사 몇몇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 취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현장 취재를 그만 두었다. 하지만 편집자는 이 일을 놓고 한동안 알만한 부흥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 왔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하여 전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뼈를 깎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도 동참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편집인 (jintvcpj@naver.com)



축

추수감사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보수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총회(행9:31)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이다. [역대상 16:8]

총 회 장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경 남 신 학 원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 계	부회계	총 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0-168
H.P 010-5325-3893

법무부 교정기독교연합회 제57회 순회예배

정음교도소(소장 김영식 집사)에서 “영성 그리고 회복” 주제로 열려

법무부교정기독교연합회 제57회 순회예배가 “영성 그리고 회복”이란 주제로 지난 11월 7일(토) 오후 12시 전북 정음교도소 대강당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4부로 진행된 행사에 1부 교정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호영 권사가 유임되었다. 2부 순서로 오찬 및 교제로 직원식당과 문화 센터에서 있었으며, 3부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4부는 예배로 정음교도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김영식 집사(정음교도소 소장)는 환영인사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순회예배에 참석한 교정직원과 교정위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정음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달라며 당부했다.

이날 기도예 정음교도소 기독교회 회장 채충근 집사, 설교는 황인술 목사(정음뉴라이프교정선교회장)가 마 25장39~4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황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과, 둘째는 공감이고, 셋째는 동행해 달라고 말하고, 수용자들이 주님 앞에서 있도록 믿음의 교도관들이 섬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용진 목사(여주교도소기독교위원회)는 간증을 통해 자신은 32세까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른 수용자를 기도해 달라며 당부했다.

그런가하면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고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지만 한 교도관이 자신을 찾아와 “조용진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바랍니다.” 하면서 책을 주었지만 글을 모르는 문맹인 자신에게 책을 준 그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

다는 생각이 들자 심한 폭언을 구사했는데 그 직원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가 전도하지 못한 죄가 더 크니 저 형제의 죄 값을 대신 받게 해 달라는 기도와 눈물이 나왔습니다. 직원이 준 성경을 읽기 위해 다른 수용자 50명에게 글을 배워 성경책을 50권을 했고, 징역 18년 10개월 만에 출소를 했다면서 자신과 같은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믿음의 교도관들께서 담 안에 있는 회랑가족(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사랑을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섬김이 없다면 담 안의 영혼들에게 거들떠볼 여의가 없을 것이다.

서호영 회장은 조용진 목사의 간증을 통해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법교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을 다시한 번 확인했다면서 회원들을 격려했고, 김영식 목사(법교선지도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쳤다.

법무부교정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일명 ‘법교선’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와 목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담장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전북에서 이기학 기자

원로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섬김의 장 마련돼

식사대접과 함께 원로목회자의 고민과 고충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돼

(사)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함의회·한기총원로목사후원위원회·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가 29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감리교신학연구원 대강당에서 ‘2015 하반기 원로목회자 초청 오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150여명의 원로목회자분들을 초청해 식사를 정성껏 대접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극히 평범한 예배와 식사일 것 같은 이 자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 원로목회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 설문조사가 준비돼 원로목회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유수의 교계 언론사 편집국장 및 기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자원봉사로 동참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은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다섯가지 축복’(골 3: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며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자”고 말했다.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목사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내 유언”이라며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려고 준비했으니 잘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라고 말했다.

원로 목회자 한분은 “밥 한끼를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느냐는 생각이 든다. 설문조사가 준비돼 원로목회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또한 유수의 교계 언론사 편집국장 및 기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자원봉사로 동참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대표회장)는 “오늘 이 한끼의 식사대접은 한끼이상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어려운 줄도 모르

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신 원로목회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수석상임회장)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식사대접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로 선배 목회자분들의 뜻을 이어 받아 나눔과 봉사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연옥 위원장(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운영위원장)은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기쁨부음 받은 자’로서의 품위 유지도 어렵습니다. 설문조사는 원로목회자분들의 고민과 고충을 해결하는 귀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 밖에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수석상임회장 김진욱 목사가 사회,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공동회장 문세광 목사가 기도,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운영이사 이명익 목사가 성경봉독, 감리교신학연구원 원장 박진섭 목사가 광고,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최병두 목사가 축도했다. 오찬기도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김명백 목사가 맡았다.

한편 이날 조사된 설문지는 별도의 자료정리를 통해 언론에 보도될 예정이다.

개혁총회 제100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 취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개혁총회, 남은 자의 총회가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제100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가 10월 20일(화) 오전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 주사랑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부총회장 조재호 목사의 인도로 1부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총회부서기 조조복 목사가 기도를, 대구 초대노회장 오진철 목사가 성경 롬11:3~5절을 봉독하고, 주사랑교회 남전도회, 대한노회, 여전도회가 순서에 따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며,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의 총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는 누



구인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유엔과 교황, WCC를 주도하여 종교 통합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변질되어 가고 처처에서 기독교를 배도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예수

를 믿어도 최종권위인 성경말씀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외면하는 신학들도 있다. 이들은 다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에 무릎 꿇는 자들이며, 성경말씀을 믿어도 도리어 사람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남은 자의 개혁총회가 되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개혁총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특별히 남겨 두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개혁총회를 사랑하시고 남겨 두신 소망이 있는 총회라며 기원했다.

이어 회계 박민규 목사의 봉헌 기도와 이정남 목사, 스리랑카 샤먼 목사가 축사하고, 취임패증장, 축하꽃다발, 축하선물, 감사문낭독(주사랑교회 대표),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총회서기 임순중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최평욱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예장개혁총회는 중식을 마친 후 3부 총회임원 및 노회장 연석회의

예장[예복]총회 인천노회 목사임직식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복) 인천 노회(노회장 장만천 목사)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소재 등불교회(곽영



를 개최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한편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27일 제15회기 정기노회에서 신임원은 노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유임, 서기 박민규 목사(새생명교회)유임, 신임 회의의무서기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

B), 회계 박종연 목사(새예루살렘교회A)가 선출되었다. 이어 안건에 들어가 이용수 목사를 제명하고, 상비부 조직 보고에서 각 부 부장과 서기, 부원들의 명단을 발표한 후 2016년 4월 노회는 충북 충주시 양성면 새예루살렘교회에서 임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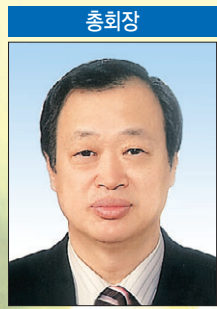
민 목사)에서 1부 임직예배를 드리고, 2부 감시기 준목의 목사임직식과 3부 축사 권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임 감시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위원은 총회장 곽영민 목사, 노회장 장만천 목사, 부노회장 최금용 목사, 서기 주찬양 목사, 김정남 목사(영안교회) 등이

를 겸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날 노회 주관으로 청송교도소를 방문 관계자들과 수감자들을 위문할 계획이다. 위의 사진과 기사는 WWW.JTNTV.KR 인터넷방송에서 자세히 다시 볼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노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장한국 목사
대한노회/주사랑교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우리교회)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권성안교회)



조조복 목사
세서노회(새사랑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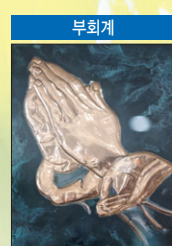
오진철 목사
초대노회(유성교회)



이영이 목사
한중노회(유성교회)



박민규 목사
대한노회(새생명교회)



정미연 목사
수도노회(은성교회)



정석진 목사
부산노회(세계교회)



장 한국 목사



박민규 목사



김정미 목사



박종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한노회)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대림프라자, 고르 7층) 전화 : ☎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서기/총무 : 임순중 목사 (010-6413-3456)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그 날이 오면

성경: 시편 10편 16절 찬송가 181장

본절은 악한 자의 허무성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악한자의 권세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그것은 얼마가지 못하여 파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영원히 섭리 가운데 반드시 적시 적소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날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움과 끝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향하라

성경: 시편 10편 17절 찬송가 621장

준비하시려는 본 문맥에서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다면 주시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준비된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준비된 자라는 점일 것입니다. 복 담긴 자로써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고아와 같이 보일지라도

성경: 시편 10편 18절 찬송가 456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꾀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영혼이 평안하게 삽니다.

제목: 나의 발이 향하는 곳은

성경: 시편 11편 1절 찬송가 336장

피하였거늘이란 말은 다윗이 이미 여호와 안에 피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산으로 가라는 그 어떤 도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닥친 위기 앞에 나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 가는 사람이 아닌 내 위기 속에서 도우실 주님 앞에 그분만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음성들

성경: 시편 11편 2절 찬송가 446장

본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은 사냥꾼 또는 무장한 군인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이 사나운 대적들을 주의하라고 다윗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닌 주위에 소리가 우리를 때론 두렵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주변의 소리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목: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성경: 시편 11편 3절 찬송가 279장

여기서 터란 곧 법률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법률과 질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하에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이 그곳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정의가 무너져 내린다면 이 세상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운 규칙도 법이란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터위에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 속에서

성경: 시편 11편 4절 찬송가 552장

다윗의 눈은 공격해오는 적들에게서부터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내재하여 계시는 동시에 모든 인간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로서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오늘 내가 봉사를 한번 하여도 기도를 한번 하여도 무엇을 하든지 그러한 의식이 있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목: 감찰의 두 가지 의미

성경: 시편 11편 5절 찬송가 406장

감찰하신다는 말은 악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그 행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의미이지만 의인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의인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내리는 비

성경: 시편 11편 6절 찬송가 325장

본절에 그물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면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는 하나님의 진노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의 종류는 내용상 진노의 비를 가리킵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현상이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만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제목: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성경: 시편 11편 7절 찬송가 250장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단 하루를 산다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길 바랍니다.

제목: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경: 시편 12편 1절 찬송가 191장

경건한자가 끊어지며 라는 말씀은 경건한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사회가 극도로 부패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과 부패가 극도로 당했고 우리를 때론 분노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사대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7,000명의 사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의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됩시다.

제목: 믿음의 선택 그 넘어에 결단

성경: 시편 12편 2절 찬송가 243장

두 마음이란 저들의 정신이 심히 혼란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 마음은 통일된 온전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택 즉 결단을 요구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거짓과 권모술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진실과 정직 그리고 성결로써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 잘했다 칭찬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주신 입을 가지고

성경: 시편 12편 3-4절 찬송가 502장

악인들은 그들의 거짓된 말이나 험박의 말을 통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범죄함이 극에 다한 것을 본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행동이나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는 입술로 범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가 축복의 언어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도구가 되는 입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

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이제 일어나

성경: 시편 12편 5절 찬송가 396장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표현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이상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벌하시고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나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를 삽시다.

제목: 영적 내비게이션

성경: 시편 12편 6절 찬송가 310장

본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응답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며 완전한 말씀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그 약속한 것을 의인에게는 영원히 기억하시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뒤따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덕목(德目, keyword)?

세상에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 그 단체나 조직의 정신을 대변하는 구호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으며 국가에는 국경 지표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영혼을 다루는 종교에는 무엇이 있는가. 종교에도 그 종교를 이끌고 가는 대표되는 정신이 있다. 이것을 덕목(德目)이라 하는데 유교는 충효를 불교는 자비를 강조한다. 그러면 기독교의 덕목(德目, keyword)은 무엇인가? 혹자는 사랑이라고 강조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서 구체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세상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사랑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덕목(德目)은 무엇이란 말인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영이 없는 인간의 혼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 악해 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6:11,14-17)고 하였고 주님은 마23:23절에서 일반적인 제도나 행위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지키라고 하셨다. 바로 의와 인과 신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요 우리의 병기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정신이요 마음이요 영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성이요 기독교인으로서 반듯 이 지켜야 할 영성이며 덕목(德目)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하였는가? 그 이유

는 간단하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봉사도 잘하고 십일조도 잘하고 열심도 있으나 정작 지켜야 할 기독교의 덕목인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주님은 화철한 무덤처럼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다 썩었는데 겉만 아름답게 보이려는 의식하는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 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관결을 피 하겠느냐고 책망 하신다(마23:23-33).

여기서 의(義)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요 인(仁)은 진실(眞理)을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애진 사랑이며 신(信)은 진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이루어 질 때 나타나는 믿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며 진리와 사랑이 없는 믿음 또한 거짓 믿음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다. 이 세 가지가 지점의를 통하여 우리 몸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것이며 비로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덕목이며 이 덕목을 모르고는 교회라 할 수 없고 교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필 송택구 목사

세계 크리스천 영성원 대표

소진우 목사 2014년-2015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4년 1월

- 1-3 모란순복음교회(양명목사)
-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 13-16 목양장로교회
- 17 한일산기도원
- 19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0-22 영광교회
- 27-30 광운기도원

2014년 2월

- 3-6 감림산기도원(이국란 원장)
- 9-12 인천은혜교회
-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7-19 대구열린문교회
- 21 감림산기도원 금요철야(임예재 원장)
- 23 성화교회
-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봄철 축복대심방

- 3-5 원천교회(최성근목사)
- 1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4년 4월

- 7-10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 1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3-17 축복교회(배상은 목사)
- 21-22 장기교회
- 28-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4년 5월

- 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2-14 나눔교회(최종덕)
- 19-21 소망교회(박중수 목사)
- 25-31 특별심야대심방(예복교회)

2014년 6월

- 2-4 비전교회(양승식 목사)
-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 16-19 뱀벌산고센터(서형범 원장)
-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 6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7-10 예배교회(양화국 목사)
- 14-17 모리아기도원(조진희 원장)
-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11-14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 18-21 감림산기도원(이국란 원장)
- 25-28 천문기원을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4년 9월

- 1-2 중부지역 연합성회
- 3 성시기도원(박정원원장)

- 5-17 성산교회(유경총목사)
- 22 은혜성결교회(정순출목사)
- 22-25 감림산금시기도원(임예재 원장)
-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9-3 선교지방문

2014년 10월

- 6-8 천호성결교회(여성성목사)
- 12 성문교회(이종현목사)
- 13-14 장기교회
- 14-16 천수기도원(김지홍 원장)
- 20-23 인천새빛교회(장기석목사)
- 26 천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 27-27 해례교회(이종현목사)

2014년 11월

- 3-6 여수서광교회(배영길 목사)
- 10-14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 17-19 소망교회(박중수 목사)
-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4-27 포천제일교회(권혁주 목사)

2014년 12월

- 1-3 성은교회
- 7-10 김중복목사초청 성막세미나(예복교회)
- 8 경기북노회연합성회
- 15-19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 2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9-31 신년축복을 위한 산상기도

2015년 1월

- 2 한일산기도원(철야이영금 원장)
- 4 안양광명교회(이동환 목사)
- 5-8 소망교회(박중수 목사)
- 12-14 은양종기교회(백한기 목사)
- 1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9-21 길신교회(김동환 목사)
- 25-28 담실리침례교회(최중호 목사)
- 31 감림산기도원(임예재 원장)

2015년 2월

- 2-5 감림산기도원(이국란 원장)
- 9-11 원천교회(최성근 목사)
-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6-19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 23-25 대구중앙교회(양원영 목사)

2015년 3월

축복심방의 달

- 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4월

- 30-2 감림산기도원(임예재 원장)
- 6-10 선교지사역자세미나
-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3-14 장기교회
- 19-25 심야특별대심방(예복교회)
- 27-29 능곡명성교회(송한철 목사)

2015년 5월

-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 7 감림산금시기도원(임예재 원장)

-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0-20 불철부흥성회(예복교회)
- 25-27 소망교회(김주영)
- 28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2015년 6월

- 1-3 진정교회(송일국 목사)
-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15-18 모리아기교회(조진희 목사)
- 18 오산리금시기도원(함달기 원장)
-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6-9 에스겔기도원(김인선 원장)
- 13-16 김해베델수양관(이순지 원장)
- 20-23 반석기도원(김영숙 원장)
- 27-30 예림금식수양관(양화국 원장)

2015년 8월

-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5-7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 10-13 광운기도원(김한배 원장)
- 17-20 감림산기도원(이국란 원장)
-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 31-1 언론사연수원(현회대표회장조강수 목사)
- 1 오산리최자실금시기도원(함달기 원장)
- 3 성산수양관(윤호준 원장)
- 7-11 은누리복음화합기(호 총재)
- 14-15 교단총회
- 14-16 군자대현교회(이화수 목사)

- 20 주님의교회(양영석 목사)
- 21-24 임직투보자교육
-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 12-13 장기교회
- 18 새빛교회(장동술 목사)
- 19-21 영광교회(임승환)
-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5-29 가톨릭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 2-5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
-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 16-18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3-25 영신교회(박조영 목사)

2015년 12월

- 30-4 마미안전교회(방만)
- 7-9 살롬교회(고정민 목사)
- 14-16 정동진 삼성그리스도의교회(최낙현 목사)
-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 28-30 반석교회(민승일 목사)
-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장승현목사 평안교회 설립 7주년기념 권사취임식

이효순 김진숙 권사취임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담임 장승현 목사)는 지난 10월 18일(주일) 오후 2시 충남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소재 본 성전에서 설립 7주년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권사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담임 장승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이남복 장로(평안교회)가 기도를, 정바울 목사가 성경봉독(계 2:10절)하고, 중경노회장 배봉섭 목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허삼성 전도사의 봉헌찬양과 장승현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날 배봉섭 목사는 설교를 통해 “1) 충성이란 죽을 형편이 되어도 끝까지 충성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2) 진실하라 죽을 형편이 되어도 진실하라 최선을 다하는 삶은 가지라, 3) 죽을 형편이 되어도 변하지 말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면서 죽을 형편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며 축복을 기원했다.

담임 장승현 목사는 2부 권사취임식에서 임직자 이효순 김진숙 씨를 소개하고 서약을 마친 후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3부에서 이경찬 목사(서광교회)가 권면을, 서정운 목사(늘사랑교회), 중경노회장 유경중 목사(성지교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따라서 이효순 권사의 담주와 이지상 학생의 색소폰연주 '생명의 양식'을, 평안교회 학생회의 '내모습이대로'의 축가가 이어지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많은 박수갈채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아울러 윤철호 안수집사의 인사 및



광고 후 노회장 김영한 목사(속말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는 “충남 당진 송악읍 봉학로 이곳에 7년 전 들어와 평안교회를 설립하게 되어 이날 뜻 깊은 주일이며 7주년기념감사예배에 두 분을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 함께 감사하고 기

뻘하고 행복한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지난 7년 동안 숱한 어려움도 겪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며 이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담후 2:1-13절을 본문으로 “영안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광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편한 말씀을 토대로 5대지로 나누어’ 첫째, 은혜 속에서 강한교회로, 둘째, 대물림하는 교회, 셋째, 충성과 열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넷째,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다섯째, 복음전하는 일에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가 될 것을 피력했다.

이날 영안교회의 설립자 김정남 목사는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강한 결단을 내리고 신학을 나와 안수를 받고 지난 7일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예배를 드렸다. 설립자 김정남 목사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목사는 현재 국제에녹부흥사회 공동회장이며, 예북부흥신학원 이사이기도하다. 술하에 남매를 두었으며, 사위 또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이다.

인천지사 kdp0920@naver.com

인천 축복받은 교회 설립 및 2주 연속성회 열어

이흥희 목사, 2주년 연속 부흥집회를 통해 ‘큰 비전을 가져’

40여년을 부흥사로 사역을 해왔던 이흥희 목사(69)는 지난 10월 17일(토) 오전 12시 인천 남구 만수동 소재 “축복받은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감사예배에서 나경일 원로목사가 설교했다.

이흥희 목사는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었음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10월 28일까지 2주 연속 부흥성회를 가졌다. 이 기간 성회는 국제에녹부흥사회(총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늦은 고령의 나이에 개척을 시작한 이흥희 목사(69)는 40여년을 부흥사로 활동한 큰 사역자였다. 이 목사는 젊은 목회자 못지않게 아직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모의 내조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이흥희 담임목사는 지금도 전국을 강단삼아 교회와 기도원 등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교회를 설립하고 이어 2주 등

한 집회를 가진 후 40일을 작성하고 40일 특별기도 성회를 시작했다. 이흥희 목사의 열정 넘치는 보수를 지켜본 지인은 마치 기관차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평안하게 사실 연세인데 힘이 넘치는 목사라며 훈훈한 덕담을 해주었다.

담임 이흥희 목사는 현재 “국제에녹부흥사회” 부흥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언론부흥사협의회 자문을 맡고 있다. 또한 69세에 “축복받은 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며, 귀감이 되리라고 믿어진다.

광영민 기자 kdp0920@naver.com



영안교회(김정남 목사) 설립 감사예배 드려

60 중반에도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교회를 설립한 김정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북)총회 인천노회에 소속인 김정남 목사는 지난 7일(토) 오전 11시에 부천 원미구 원미1동 79-27번지에 영안교회를 세우고 설립예배를 드렸다. 우종인목도 원근 각지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장소가 비좁기는 하지만 설립예배를 감사하며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인천노회 주관으로

진행되어 노회서기 주찬양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부 노회장 최금음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김성기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찬양사역자 김미옥 목사와 안국감리교회 지휘자 이경성 집사와 같이하고 장소가 비좁기는 하지만 설립예배를 감사하며 축하했다.

직예수 찬양 선교단(선정운 목사, 이순화 사모), 봉헌기도에 총회장 광영민 목사가, 교회설립 선포 및 설립 인허 증 수여에 인천 노회장 장만천 목사가, 축사에 한빛교회 담임 김학휘 목사가, 권면에 담임자의 은사이며 예북부흥신학원 교수인 광흥선 교수가, 노회장 장만천 목사 축도 순으로 설립감사예배



인천지사 kdp092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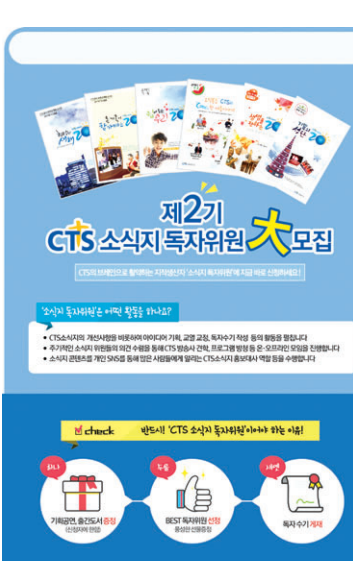
‘2016 제2기 CTS소식지 독자위원’ 모집

새로운 형식의 독자 모니터링단 모집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1기에 이어 2016년에 활동할 ‘제2기 CTS소식지 독자위원(이하 독자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격월로 발간되는 ‘CTS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독자위원회는 각 기사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면 평가와 소식지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게 된다.

홍보팀 박선영 사원은 “연간 20만부 이상 발행되는 CTS소식지는 귀중한 선교 도구로 크리스천에게 사랑받아오고 있다”며 “제2기 소식지 독자위원 활동을 통해 CTS 영상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1기 독자위원으로 활약한 전형경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 동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CTS소식지를 통해 전해질 사랑의 소식들을 기대하며 많은 분들이 귀한 자리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독자위원 신청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CTS 홈페이지(www.cts.tv) 및 CTS 블로그(http://blog.naver.com/ctsmanage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11월 27일까지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독자위원은 성별, 나이별, 직업별 안배를 고려해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독자위원에게는 소정의 선물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및 문의 : 02-6333-1051 lucy@cts.tv)

— 축 2015 추수감사 —

대한예수교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중 .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회 평안교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이다 (시 105:1-2)

표어 :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요14:27)

◆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1. 마음을 다하고 2. 성품을 다하고 3. 힘을 다하여 (신6:5 막12:30)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주일 오후	오후 2:00	중. 고등부	토요일 오후 4시
삼일 예배	수, 오후 7:30	성가대/청년회	주일오후 3:00
금요구역(목장)	오후 2시, 3시, 8시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20



담임목사 장 승 현
REV. Jang Sung Hyun

• 협동목사: 김재홍
• 협동장로: 이남복
• 집도사: 허삼성
• 제 위: 정성진 담주/피아노: 강다현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362-6호 홈페이지 http://pyeong-an.com
TEL 교회 : (041)356-0644 E-mail:sunghyun732@hanmail.net

◆ 선교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 ◆
국민일보, cts, 새희망재단, 선의장로교회
장애인선교회, 서산중앙병원, 현대중공업



평안교회 설립 7주년 기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종북 좌파 최후발악

한반도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를 최후결전, 양보도 타협도 불가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결정하자 15일 김정은이 ‘조선교육위원회’성명을 통해 “파쑸독재와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남조선’ 보수반동집권세력이 “(북과)우리의 존엄과 체제, 성스러운 역사를 결코 건드릴만한 도전”이라며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라”고 지령 선동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지령한마디에 소위 ‘민중사관=김일성혁명역사’에 찌들은 학계와 이를 교단에서 전파 해온 전교조와 민교협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새민련 등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지자체선거와 대선이 있던 2006년과 2007년 김정일 신년사 지령과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 1월 1일 김정은 대남명령1호로 하달된 ‘반 보수 종북(진보)대연합’ 정치 및 사상이념투쟁 국면이 서둘러서 재현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2월에 채택키로 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집필방향이나 지침은커녕 필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괴의 대남모략선동지령 대로 새민



련 등 야당 정치권과 전교조 민노총 등 종북 좌파진영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친일독재교과서 역사쿠데타”라는 구호를 무한반복, 국민여론을 오도하면서 반정부 반체제 투쟁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개되고 있는 종북 반역세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은 단순한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북괴가 ‘김정은 일가의 존엄과 원시 야만적 3대 세습 살인폭압체제, 왜곡날조된 가짜 항일투쟁역사’를 지키려고 발악하는 체제대결의 최후결전장이 돼 버린 것이다.

그 동안 남북 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 간에 ▲경제적 잘살기 경쟁, ▲군사적 힘의 경쟁, ▲정치적 정통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가운데 역사 교육이 통일한국의 주인으로서 정통성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지난 45년간 북괴의 대남문 화침투공작을 강화, 민중사관을 앞세운 역사침탈(歷史侵奪) 음모가 꾸준히 그리고 악랄하게 진행된 것이다.

남북 간에 경제적 측면에서 잘살기 경쟁은 남북한 간 GDP 40:1, 국민인당 GDP 20:1 이란 격차가 말해 주듯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압도하게 되었으며, 군사력 측면에서도 재래식 군사력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상쇄 만회하려고 해 미 화생무기와 게릴라 및 사이버전력으로 대체 상쇄하려고 발광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정부와 국민이 안일하게 대처, 방치 방관한 가운데 집요하게 파괴 든 역사이념침투가 성

공한 유일한 분야이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가 이루어지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인구비례는 2:1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남한 내에 6.25 남침 전범수괴 김일성과 아웅산 묘소 폭파, KAL기 공중폭파와 국제테러범 김정일에게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하는 종북 반역세력의 육성으로 천안함 폭침, 장성택을 도륙한 쫓내기 도살자 김정을을 통일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꿈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체제대결의 총결산이라 할 정통성경쟁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또 누구여야 하느냐를 판가를 지을 역사전쟁에서 필승을 다잡하기 위해서는 이번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는 어떤 화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하에 깊숙이 숨어 있던 반정부반체제세력이 ‘친일독재역사쿠데타’ 반대전선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피아구분 이 명확해지면서 종북 이적반역세력을 일망타진할 기회가 왔다는 점이다.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아이들 연령에 맞는 맞춤식 성경공부로 믿음을 키워요

교회학교, 예그리나 트리니티 / 샤이닝 트리니티

토요영어학교 / 예수제자학교 개강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공립교회 교회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6주 동안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연령대별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다.

영·유아·유치부의 ‘예그리나 트리니티’는 ‘말씀 속, 믿음 속!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체육, 요리,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오감(五感)으로 말씀을 익히며 배우게 된다.

아동부는 ‘샤이닝 트리니티’와 ‘토요영어학교’로 나누어 진행된다. 샤이닝 트리니티는 ‘성경 통독하는 어린이-독한 친구들’이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성경통독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4D프레임 입체도형 만들



기 활동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손으로 직접 말씀을 만들며 새겨보는 즐거운 체험이 예정되어 있다.

토요영어학교(Trinity Bible School)는 아동부 트리니티의 영어 버전으로 새롭게 진행된다. 영어로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궁극적으로 성경적 지식을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

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중·고등부 ‘예수제자학교’는 성경의 구성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커가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교회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월요조찬기도회, 김철영 목사 전도특강

매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순복음강남교회(담임목사 최명우) 선교비전센터 2층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열기로 달아오른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하는 기도회는 9일 제274회 짝을 맞았다. 이날 기도회는 오후에 장로(순복음강남교회)의 사회로 김영구 안수집사(남양주 힐링전원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누가복음 10장 1~20절을 본문으로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는 제목으로 전도특강을 인도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특강을 진

행 김 목사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돌씩 짝을 지어서 팀으로 하는 전도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변 분위기를 조율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도는 진정한 영적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사탄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돌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가라, 내가 너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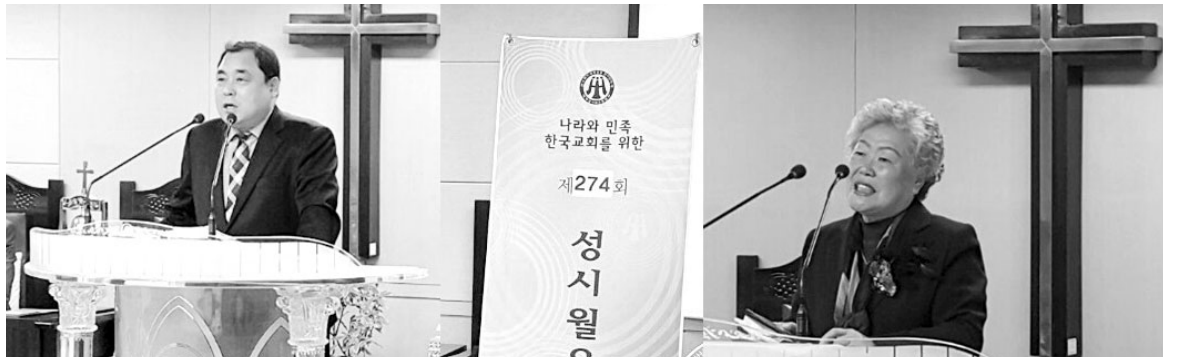
를 보냄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활력을 당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전도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싸움터”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특히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을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곧 전도자는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

되는 삶의 모습으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의롭고 진실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정하게 행하라고 권했는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성령을 의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나던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자신의 지혜와 설득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며 구원의 확실 가운데 진리



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예수마을공동체 최현숙 목사(유럽성시화운동본부 회장)가 선교 사역보고를 했다. 최 목사는 “예수마을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유럽의 재복음화와 이슬람 대처 사역을 해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한불교회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파리에 와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을 위해 ‘사랑의 전화’를 개설해 전화 상담사역도 해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국제결

혼을 한 한불부부 80퍼센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불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한 불교회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시화운동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박근해 대령이 하나님을 경의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정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도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시화운동 사역을 통해 도시

단위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교인마다 전도훈련을 받고 시민들에게 복음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교회들은 배가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기획한 성시화비행기축제가 오는 18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김인중 목사,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김철영 목사가 전도메세지를 전한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빕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 靑松 건강칼럼 (발암물질 加工肉 · 赤色肉)

가공육(加工肉)과 적색육(赤色肉)의 적정섭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processed meat)을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그리고 소·돼지·양고기 등 붉은 고기(red meat)를 2A군(Group 2A)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발표했다.

1965년에 설립된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과 문제되는 물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Group 1: 확실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Group 2A: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개연성(蓋然性)이 있는 물질, Group 2B: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가능성(可能性)이 있는 물질, Group 3: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분류가 되지 않은 물질, Group 4: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국제암연구소는 10개국 전문가 22명이 모여 육류 섭취와 암(癌)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IARC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며, 이미 발표된 논문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체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IARC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 50g씩 매일 먹으면 대장암(colorectal cancer) 발생률이 18% 증가한다. 한편 적색육을 1일 평균 100g씩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17% 증가하며, 또한 췌장암(pancreatic cancer)과 전립선암(prostate cancer)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

IARC 보고서 책임자인 쿠르트 스트라이프(Kurt Straif) 박사는 “가공육을 적게 섭취하면 대장암(大腸癌)이 발생할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높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어 공공보건 차원에서 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다. 이 보고서는 결국 가공육과 적색육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지, 아예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크리스토퍼 와일드(Christopher Wild) IARC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의 권고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주요 영양 섭취원인 붉은 고기(赤色肉)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암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권장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제암연구소는 육류 섭취는 나라와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에 따른 적정량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ARC는 전세계 적색육 섭취 인구의 중간 섭취량을 1일 50-100g으로, 그리고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1일 200g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금번 IARC 보고서를 접하면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떠올랐다. 즉,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과식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과유불급이란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로서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는 뜻이다. 공자가 말한 이 말은 중용(中庸)의 중합, 시중(時中)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자공(子貢)이 묻기를, “사(師: 子張의 이름)와 상(商: 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師는 지나치고 商은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 師가 낫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하였다.

자장(子張)과 자하(子夏)는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자장은 기상이 활발하고 생각이 진보적이었으며, 자하는 만사에 조심하며 모든 일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자장은 천하 사람이 다 형제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였으나, 자하는 ‘나만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발암물질(發癌物質, carcinogen)이란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서 외인성(外因性) 발암물질과 내인성(內因性) 발암물질로 나눌 수 있다. 외인성 발암물질의 90% 이상이 자연환경의 화학물질로 밝혀져 있다. 즉, 발암물질은 인공물질이나 합성물질을 비롯하여 자연물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균류가 만드는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곡식이나 땅콩에 존재한다.

발암물질은 유전자에 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된다. 유전적독성물질은 DNA에 붙어서 되돌릴 수 없는 유전적 손

상이나 돌연변이(突然變異)를 일으킨다. N-나이트로소(nitroso) 화합물과 같은 화학물질과 자외선,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과 같은 비화학적물질이 있다. 또한 특정 바이러스는 발암성물질과 같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비(非)유전적독성물질은 직접적으로 DNA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한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된 구운 고기와 같은 음식에 담배에서 발견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고기를 뜨거운 팬에서 굽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2-3분 정도 미리 조리를 하면 HCA(heterocyclic amine) 전구체를 제거할 수 있기에 발암물질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암물질의 전구체인 발암전구물질(procarcinogen)은 그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nitrosamine)으로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가 우리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량을 고려할 때 발암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국내 관련 학계와 산업계는 육류(肉類) 섭취의 순기능은 배제한 채 석면, 비소 등과 동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가공육, 햇빛 등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붉은색 고기, 커피 등을 제초제(除草劑)와 동일한 2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햇빛은 비타민D를 체내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구루병(佝僂病), 골연화증(骨軟化症)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과도한 노출은 피부노화,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커피의 경우도 유방암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과하지 않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색육, 가공육 등 육류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비타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육류의 철분은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구조로 채소류의 철분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육류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평균 가공육 6.0g, 적색육 61.5g을 섭취하고 있다. 영국은 가공육과 적색육을 합쳐서 하루 70g을, 그리고 호주는 65-100g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39세 남자의 경우 적색육 섭취가 1일 평균 100g(20대 112.4g, 30대 106.8g)을 넘고, 10대 청소년(남자)의 가공육 섭취가 1일 평균 18.2g으로 남녀 전체 평균의 세 배가 넘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공육과 적색육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제조·가공·조리 과정에서 단백질 성분인 아민(amine)류가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으로 변할 수 있다. 또한 살균·발색(發色)을 위해 가공육에 첨가하는 아질산나트륨도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다.

암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고기를 먹을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항산화(抗酸化)성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체외로 빨리 배출된다. 따라서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한다. 또한 고기를 구울 때는 석쇠로 직화(直火)구이보다 불판을 사용하며, 탄 부위는 먹지 않도록 한다. 고기는 구이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요리하면 발암 위험성이 줄어든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햄, 소시지 등 가공육도 찢거나 수육 형태로 먹으면 발암(發癌)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 즉, 볶거나 굽지 말고 데쳐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물에 데치면 기름에 볶을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 익혀서 먹을 수 있다.

가공육을 볶을 때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는 워터프라이잉(water frying)은 프라이팬을 달궈 물을 조금 두르고 소시지, 햄 등을 볶는 조리법으로 기름 섭취량을 줄이면서 소시지, 햄의 식감(食感)과 풍미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소시지와 햄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양배추 소시지 덮밥’ ‘소시지 깃털 컵밥’ 등을 활용하면 좋다. 핫도그에 넣을 소시지도 굽거나 볶지 말고 데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식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암협회는 암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므로 한 가지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질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므로 건강 관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건강을 해치는 원인에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요인,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이 밝혀져 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40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30종 이상의 식품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생 동안 약 25톤에 달하는 많은 음식을 먹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You are what you eat.). 즉 당신의 몸은 당신이 섭취한 음식들의 결정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박자 건강” 조깅 건강학! (54)

자기 체력 감안해 적당한 거리와 일정 속도 유지해야

항성주 박사

조깅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운동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몇 번 시도하다 그만둔 경우가 많다. 건강에 좋은 줄은 알지만 자기 체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한가하게 뛰어야 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많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체로 조금하다. 운동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몇 번 시도해보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보약을 먹고 당장 힘이 솟는다고 하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다. 진짜 보약은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도 줄어드는 것이다. 진짜 건강에 유익한 것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시도해 보고 나서 그 효과를 관정해야 한다.

조깅은 자기 체력에 맞는 만큼 적당한 거리를 자기 속도에 맞추어 뛰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자신감이 생기는 대로 거리를 늘려갈 수도 있고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무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구보에 있어서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열외해서 뛰라라는 것이 좋다.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쟁적으로 빨리 뛰거나 무작정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차라리 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조깅은 ‘원리성’과 ‘유용성’에 있어서 어떤 운동보다 낫다. 다른 운동과는 달리 조깅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돈이 들지 않는다. 꼭 이른 아침에만 한정될 필요도 없다. 서류봉투를 들고 1층에서 10층까지 뛸 수도 있고 출퇴근시 두세 정거장 거리를 뛰어 갈 수도 있다. 사실상 시간의 제약도 없다. 1분간 할 수도 있고 10분간 할 수도 있다.

또한 뛸다는 것은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조깅은 피해야 하며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정도를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조깅은 심장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며 심장의 수축력을 증대시킨다. 조깅을 생활화하는 사람의 심폐기능은 보통사람에 비해 20~30% 증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생체 포도당의 이용을 증대시켜 혈당을 내리는 작용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깅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어 좋다.

이른 아침 거리를 누벼라. 꼭 아침이 아니어도 좋다. 일본에서의 한 연구결과, 아침 조깅보다 오후 5시 이후의 조깅이 훨씬 몸에 유익하다는 이론이 제기된 바도 있다. 뛰어도 좋고 걸어도 좋다. 뛰면서 건강해지는 새로운 건강문화가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축 2015 추수감사 —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나라(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장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한보협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단체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430501-01-255544 (사단)한국보수교단협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

(화곡동 호용빌딩)

☎(02)2608-2190, Fax 02)2608-2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췌아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에녹부흥신학원

대 표	학술원장	이사장	총동문회장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	이재갑 목사	배정희 목사	주찬양 목사	김영애전도사

이 사 진

박애스드 목사	주찬양 목사	최건숙 목사	한사라 목사	정기남 목사	전미리 목사	김정남 목사
---------	--------	--------	--------	--------	--------	--------

교 수 진

조지안(북부총회)	복음교단	교회음악	히브리어	기독교무	제자양육
박영민 교수	박형모 교수	김성기 교수	박경자 교수	김창숙 교수	이원호 교수
영성학(요한계)	성경학	회개복음화사	성령론	찬송(찬)학	복음송(찬)학
주찬양 교수	박홍신 교수	정민현 교수	제갈요한 교수	전정애 교수	최시림 교수

http://kiea.onmam.com

◆ 수업일 : 기독교에너지과정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금, 토 오전 10시 - 오후6:10분.
신학부 · 연구원 - 매주 목, 금 오전 10시 - 오후6:10분.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학술원 : 매주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찬양교실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 장소 : (인천)등불교회.
· 주소 :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 문의 : 010-6778-0651

총회 신학 · 신학원

학 장

유연식 목사

이사장

이승모 목사

사무총장

오성숙 목사

이 사 진

곽노임 목사

최미영 목사

김근순 사모

교 수 진

유연식 교수

이승모 교수

오성숙 교수

최미영 교수

김근순 교수

곽노임 교수

학 과 및 강의시간

신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선교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1시부터
 기독교워십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3(구, 십정동 282-16) 성호빌딩 2-3층
 문의: (사무총장)010-5013-1723, (학장)010-4743-7313, (fax)032-423-7313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시 95:2~3)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담임 이규필 목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전화 : (02)854-1326, H.P 010-7474-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담임 김안식 목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

담임 최순진 목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열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향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원로 임신희 목사

한경총 증경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허식 목사

한경총 증경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주 일 예 배 안 내

◇ 매일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 매일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주관)
◇ 매일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호장)

원장 주은총 목사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담임 이상중 목사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담임 정석진 목사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119길 18호
H.P 010-3950-5049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담임 임혜목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박홍숙 목사 (우송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원장 객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헌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장로 : 송두현, 박성현
정립집사 : 강정구, 황규형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담임 객완국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예 교정선교회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욱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담임 소진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비시티 2단지 옆
☎(02)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일성경공부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담임 박형휘 목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02)593-39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담임 이훈복 목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담임 오진철 목사

대구시 동구 신덕로5길 99
H.P 010-8914-096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예배 밤 8:30

담임 이기몽 목사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예측)총회장
◆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예측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사장,언부협사무총장)

담임 객영민 목사

인천시 남구 능해길5(송의1동)
☎032)891-0651, 010-2080-0651

특강초청 장 한국 목사

주 사랑교회 장한국 목사는 지난달 8명의 선교팀(사모, 이항기 권사, 권순상 집사, 박현주 집사, 심현미 집사)과 동행, 스리랑카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장한국 목사와 선교팀이다.

무려 8시간을 비행 다음날 새벽 4시경 콜롬보 공항에 착륙하자 이비우 선교사, 딜립 목사가 장 목사 일생을 환영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우기로 인해 습한 스리랑카는 선교팀을 힘들게 했다. 장 목사와 선교팀은 10월 7~9일까지 '아폴러 캄바하 임마누엘교회'에서 1차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12~13일은 '라그마 캄바하 보이스타운'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스리랑카의 종교분포를 보면 싱할라족(스리랑카본토인) 74%, 타밀족(인도에서 들어와 정착한 민족) 18%, 무어족(무슬림) 7.5%, 기타 0.5%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아울러 불교 69.3%, 이슬람교 9.8%, 힌두교 13.6%, 카톨릭 5.3%, 기독교 2%다. 여기서 기독교인 2%중 싱할라족이 0.66%, 타밀족이 1.34%이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성경번역을 위해 노력한 선교사들이 생할려 언어의 문화를 지각하는데 실패함으로서 한 세기동안 여러 번의 개정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 성경번역에는 보물로 담겨나온 승려와 까러터터 담며려며 승려도 있었다고 한다.

스리랑카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스리랑카 사람들을 매우 폐쇄적으로 다루었고 자기들이 존경과 경의를 받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스리랑카 기독교는 분명히 스리랑카 역사의 아픈 부분이다. 이것이 오늘날 선교사역의 문제점으로 현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영어로 설교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스리랑카 인구 중 영어로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까?

영어의 언어가 국제적이고 편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스리랑카 선교에 있어서 생할려어와 타밀어의 사용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본다.



스리랑카 목회자들 큰 감동과 변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60여명의 목회자들 큰 변화일어

스리랑카는 450년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카톨릭(포르투갈 지배)과 기독교(네덜란드 지배)와 성공회(영국지배)가 들어왔고 1948년 독립되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500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종교로 여겨지는 이유에 대하여 쏘머라프너(CTS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와 가까운 관계를 가졌으며, 기독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으로 현지 목사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교회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 또한 현지 목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보다는 외국 선교 단체들과 관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풀뿌리 신앙으로 스리랑카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드디어 1차 집회가 임마누엘교

회에서 약 60여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탄 목사의 통역으로 시작되었다. 첫날의 분위기는 조금 냉랭하고 준비가 안된 분위기속에서 시작되었다. 창세기강해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는 많이 달랐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으나 성경을 문자로만 알고 믿었던 자들이기에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런가하면 집회 시작하는 날, 이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는 진지하지 못하였고, 팔짱을 끼고 있거나 몸을 비스듬히 뒤로하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목사들도 보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저들의 태도와 심령으로 인해 잠시 말씀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되었다. 이 때 이 소식을 들은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태도와 모습에 깨어지기 시작했다.

강사로 나선 장한국 목사는 강해 중에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진리

를 증거 할 때, 그저 한국에서 온 목사란만 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단순히 창세기를 구약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던 것에서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집회가 끝나는 날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강사를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에 죄송하다며 정중한 태도로 사과하고, 귀한 말씀을 증거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이비우 선교사의 의하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 넘어간다고 한다. 이들의 변화는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마누엘교회의 주일예배 후 안수기도 시간을 통해 듣지 못했던 성도가 장 목사의 안수기도 후 귀가 열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2차 집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보이스타운에서 약 70여명의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딜립 목사의 통역으로 창세기 말씀이 증거 되었다. 말씀증거 시작 전에는 집회를 준비한 스태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감사와 선교팀에게 안겨주었다.

문제는 여기서도 이들의 영적인 어둠에서 진리의 빛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진통이 뒤따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증거 되는 말씀의 겉으로 이들은 변화가 일어났고, 겸손한 마음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싱할라족과 타밀족으로 나누어졌는데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두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불가하여 인원이 적은 타밀족은 바깥 배란다에 나가서 말씀을 듣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마치는 시간까지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고 이들의 모습에 우리 선교단원은 마음이 쉼겨져 왔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그들이 진리를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급함으로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려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으며 진리의 서적을 보내주길 거듭 부탁했다.

이번 스리랑카 집회는 이비우 선교사와 딜립 목사, 사탄 목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번 선교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됨으로 어둠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 현장에서의 치열한 영적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파부로 느끼고 깨달았다.

선교팀 일행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분명히 보게 하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목표도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하나님의 종 장한국 목사를 통하여 진리의 빛의 비추임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스리랑카 모든 주의 종들이 날마다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양식과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종을 분별하여 이 때에 맞는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앙으로, 첫째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세움 받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는다. 이번 스리랑카 선교를 통하여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 선교팀, 스리랑카 선교 감사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박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예장개척 총회장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생회	토, 오후 5: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청년회	토, 오후 6:00
새 벽 예배	새벽 5:00	여전도 구역예배	금, 낮 11:00
금요철야예배	밤 9:00	남전도 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00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춤투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칼럼

화해의 복음



성현교회 박형휘 목사

인생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여기저기에서 혹은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치열한 경쟁의 사건들이 돌출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아픔에는 중요한 것이 관계회복이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와의 관계는 전쟁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인생은 거미줄 같은 관계설정으로 형성된다.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 한 독불장군식의 삶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좋은 관계는 자동차의 윤활유 같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는 삶의 질을 퇴락 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다.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영성과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매우 중요하다.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신앙도 인생도 관계로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한다.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서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몸밖에 거주하며 이슬을 먹고 살아도 그곳이 천국과 같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나빠서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단절 된다면 궁궐에 살면서 고기반찬을 먹으며 살아도 그곳이 지옥이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 직장은 꿈의 직장이 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상사와 동료 사이가 나빠지면 그곳은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속히 떠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 감정이 관계 속에서 작용하며 이걸 잘 아는 원수가 기회를 노리고 그 기회 속에 파고들어서 삶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골절된 관계는 속히 복구 되고 회복되어야한다.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도 무겁고 어둡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과 문제로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모든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물론 인간 편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 없다.”

맞는 말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음고생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를 깨뜨리시며, 성숙시키시길 원하신다.

따라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요소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내야한다.

구약성경에 ‘하나’ 라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다. 그 이유로 첩실인 ‘브닌나’ 가 낳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같은 여자로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 생살에 소름을 뿌리듯 한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와 맞대응하지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파듯해진다. 한나는 문제 해결을 브닌나와의 관계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녀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 제주셨다. 만일 한나가 자신을 격동 시킨 브닌나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웠으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거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야한다. 그 다음에 브닌나(직장동료, 배우자, 그 어떤 대상)를 찾아가서 마음을 낮추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한다.

이 일은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신다.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회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을 아름답게 빛어갈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삼농(三農), 삼학(三學), 삼정(三政)

도, 정치에도, 그리고 기업경영에서도 두루 통한다. 농사에 하농, 중농, 상농이 있듯이 학문에도 하학, 중학, 상학이 있고 정치에도 하정, 중정, 상정이 있다.

하학(下學)이란 학문을 익히되 자기 자신의 부귀영달에만 급급하여 사회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학자이다. 중학(中學)이란 학문을 익히되 자기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보호하기에 머무는 학자이다. 상학(上學)이란 학문을 익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웃과 겨레에 큰 이익을 주는 학자를 일컫는다.

요즘 우리 사회의 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을 살펴보면 상학은 드물고 중학은 많은데다 하학이 득세하는 경향까지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그러기에 하학을 없애하고 중학으로 하여금 상학으로 높여 가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일이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3정(三政)은 농사꾼 중에 3농이 있고 학자들 중에 3학이 있듯이 정치가들 중에 역시 3정이 있다. 정치가들 중에 자신의 패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자기 한 몸의 이권에 매여 정치를



김진홍 목사

할 때 그런 정치가는 하정(下政)에 속한다. 정치가가 자신의 몫만을 챙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비전을 심어 주지 못할 때에 이런 정치가들은 중정(中政)에 속한다. 그러나 정치가가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앞세우고 자신은 오히려 희생할 때에나,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때에 그런 정치가는 상정(上政)에 속한다.

이 나라의 정치가 하정에서 벗어나 어떻게 상정으로 진입할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지도자들을 3부류로 구분하여 일러 주셨다. 첫째는 절대로 강도 같은 지도자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가는 자는 절

도며 강도요”(요한복음 10장 1절) 절도와 강도 같은 지도자, 목사, 정치가는 하정에 속한다. 부정축재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지도자들이다.

둘째는 샅꾼인 지도자이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요한복음 10장 12~13절) 자기가 보수를 받는 만큼만 일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에만 움직이는 지도자이다. 일컬어 샅꾼 목사요, 중정에 속하는 정치가여 지도자들이다.

셋째는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장 11절)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고 공공목적을 위하여 살신성인할 수 있는 지도자이다. 교인을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목사이다. 어렵게도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음이 슬픈 일이다.

이단 상담, 선교적으로도 중대사역

총신대학교, 학술 심포지엄서 이단대처의 새 관점 제시한다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교회선교연구소(소장 임경철 박사)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대표회장 진용식 목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개혁주의선교신학 학술 심포지엄이 2015년 11월 2일 총신대학교 제 1종합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의 특징은 이단 대처와 이단상담을 선교적 관점에서 조명했다는 점이다. 주제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선교적교회의 이해와 이단 대책’이다.

발제 1은 선교신학분과로서 정경호 박사(대구 CCC대표)가 ‘한국교회의 변화된 환경에 따른 선교적 교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제 2는 선교리더십분과로서 김희수 박사(한국성서대학교 교수)가 ‘국내 거주 네팔 노동자 선교를 통한 네팔의 선교전략 연구’, 발제 3과 4는 이단분과로서 각각 진용식 목사가 선교적 관점에서 본 이단상담, 이덕철 목사가 ‘선교적 관점에서 본 신전지 세계관 비판’을 주제로 다루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단상담의 개척자인 진용식 목사(안산 상록교회)는 “이단 대처는 교회를 공격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의 하나다”며 “특히 이단 상담은 이단에 빠진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정통교회로 회심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교사역이다”고 평가했다. 진 목사는 이단상담을 통해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늘고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함께 상담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증가하게 되고 △교회 개척에도 성공할 수 있다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포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제언했다.

개혁주의선교신학 세미나의 행사는 설교 김영우 총장, 기도 고광석 목사(광주 서광교회), 축도 김재호 목사(동산교회), 사회 김희백 목사(선교대학원 주임교수), 환영사 임경철 교수(총신대 일반대학원), 격려사 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담임)가 전했다.

유연식 건강교실(2)

유연식 체조의 목표와 원리

심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조화시켜 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경계를 통한 정상적인 정신 기능처럼 신체적인 건강도 정신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 신체가 병이 나거나 신경계가 손상을 입으면 마음은 불안정해지거나 무능해지며 조절과 집중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자아훈련을 통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체조의 주된 목적은 근육이 보다 잘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완은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육의 긴장이 중지하는 것이다. 이 체조와 같은 유연성 훈련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방지하고 이완을 촉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 또한 신체 균형과 보다 신체의 전부가 동원되는 운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유연성 훈련 프로그램을 체력 향상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경우 전적인 체력 향상은 물론 신체 균형미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체조를 꾸준히 하므로 근육통을 경감시킨다든지 완화시킬 수 있다. 체조는 안전성을 수행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본인이 효과를 주며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에 과분한 체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분한 체조를 할 때 위험 요소가 따라오기에 조절을 잘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다른 요소가 파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 때 체조는 유연성을 동반해야 하는데 단시간 내에 향상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에는 편안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점진적으로 진보된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한다. 체조는 근육의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에 느슨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유연성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연령이나 성 유연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체조를 잘 적응할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 수준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알맞은 신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해를 방지하고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이다.

인전자사 kcp0920@naver.com

유연식 목사
우리사랑선교회 대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의 필독서

Tabernacle
Spirituality

성막영성

막다른 길에 다가선 절박함과 구원의 서정을 향해 가는 신앙인의 돌파구이자 전환점인 성막 영성을 말하다!

구원서정의5단계 : 송택규 저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 하나없는 거친 황량한 광야에 외롭게 우뚝 솟은 성막 그러나 그곳에 광인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 또한 화개와 용사가 있었고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이 있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곳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곳이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적 비밀들을 알려 주시고 친히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들 속에 그분의 성품이 담긴 영성으로 들어가는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공물과 사람이 많으신 자서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첫 번째 성막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천국 궁전의 모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성막의 비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의 전 생애를 예표하고 있다. 세 번째 성막의 비밀은 타락한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구원의 순서 즉 구원의 안내도(Direction)라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지지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음을 친절하게 알려 주셨다. 네 번째 성막의 비밀은 구원으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성도들의 믿음을 그때그때마다 점검하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량에 미달하면 탈락시키고 재시험을 보게 하신다. 그러나 그 분량에 도달한 성도는 한 계단 통과시키고 거기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다섯 번째 성막의 비밀은 그 안에 예배의 순서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덮여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듣고, 헌금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순서와 의미를 바로 알고 드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와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실제적이고 엄숙한 희생제사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영의 부모이다. 그 부모의 사랑과 뜻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성막의 영성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화된 것이다. 이러한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까지 숨겨 두셨던 것들이더라이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자 한다. 이 글은 본인이 연구하거나 본인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작품이다. 이 성막의 비밀, 곧 성막 영성-구원서정의5단계-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영성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발원지이에서 송택규

저자 송택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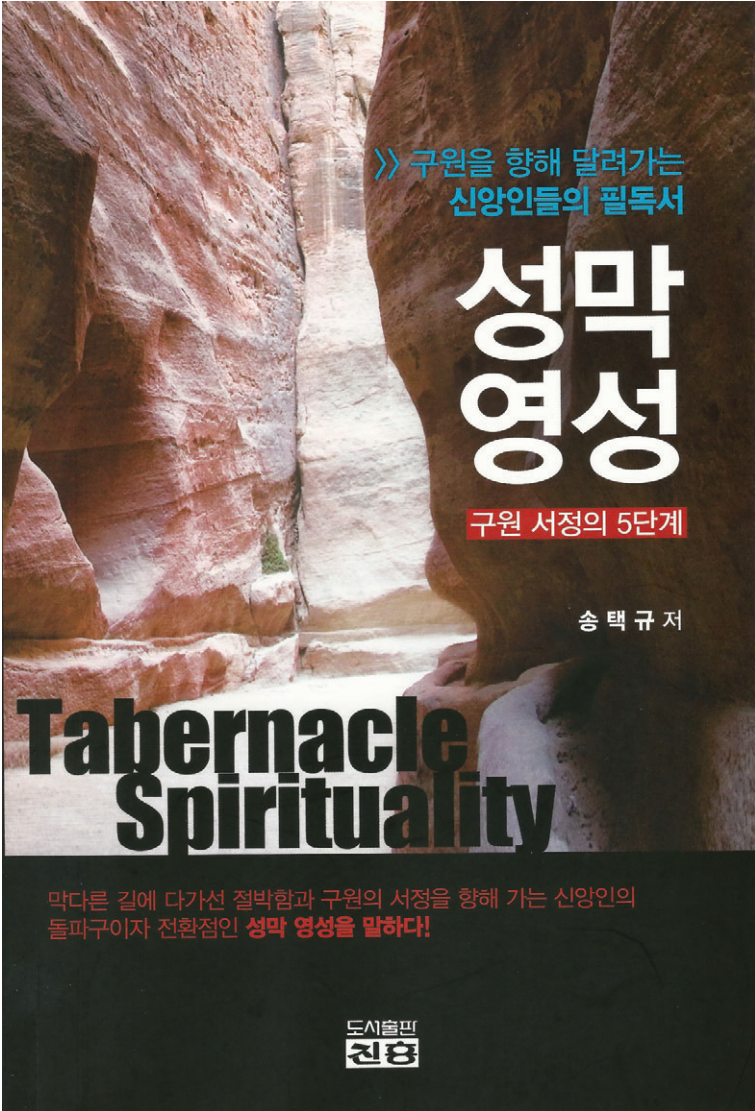
평양신학교, 백석대학 대학원 졸업
트리니티대 목회학박사
유인대 철학박사 및 신학대학장
로드랜드대 교육학 박사 및 신학대학장
샌퍼난도밸리 한인회 이사장
남가주목사회 부회장

현재 세계 크리스천 영성원 대표
미주타임즈(Mjtimes)
지저스타임즈(www.jtntv.kr) 주필

지저연락처 : tel(213)-663-8640 / (213)933-9136
E-Mail:ldorhope12@gmail.com / www.mjtimes.com

책 구입 : 우체국 104794-02-320-848
예금주 : 송진숙

문의전화
H.P 010-2009-597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